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June 2019



관련 기사 : 31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 4 또 하나의 퍼즐 조각: 아르메니아

사역소개

- 7 아르메니아 사역 소식

안나의 골방

- 10 주님께 기대세요 지나갈 것입니다

터키는 지금

- 12 300명의 숙청 당한 판사들, 검사들은 법률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13 터키 검찰은 굴렌과 연결된 혐의로 소즈쿠 언론인들을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터키 법원, 앙카라에서 LGBTI 활동 금지령 해제

중동은 지금

- 15 이라크, 터키와의 관계 개선
16 파키스탄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의 캐나다 도착
18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모든' 예지디의 귀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생명 이야기

- 20 이스탄불 시리아 난민 교회 개척자 샤로 간증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보고 (2)

- 23 사역자 보고
30 간증

2019년 6월 28일 통권 106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률,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자신을 확대한 시어머니를
용서한 믿음의 사람 젤라하 (p.31)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언약교회)
고훈목사 (뉴욕하은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목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김태형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요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회)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목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주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패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벧트리교회)

순화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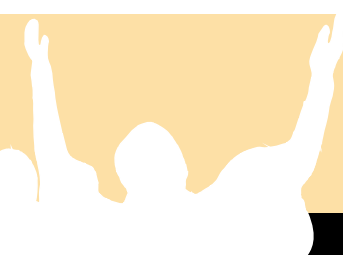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환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7월 12일과 13일 달라스에서 첫 이사회로 모이는 KBP(Kingdom Business Partners)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영적 대 추수와 주님의 재림의 길이 더 역동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사 45:3)"는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들이 항상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41유닛의 CP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터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아르메니아 교회를 사용하소서! 아르메니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터키의 영혼들을 진정 용서하게 하시고,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일꾼들을 동원하게 하소서!
- 쿠르디스탄에 저희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현지 일꾼들을 예비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소서! 특별히 예지디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0)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또 하나의 퍼즐 조각: 아르메니아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사19:23-25)

1. 이집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한 퍼즐 조각

2000년 전 마가가 이집트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집트에 전해진 복음이 로마제국의 수많은 박해와 이슬람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단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집트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랍어권 무슬림 난민들과 북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아랍어권 민족들을 향해 복음 전파 및 교회개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중요한 한 퍼즐 조각임을 깨닫습니다. 현재 이집트 교회 가운데 수 많은 젊은이들이 아랍어권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앗수르는 어떤 나라이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사 10:5-7). 그런데 앗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고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앗수르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앗수르가 차지했던 땅은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 지난 5월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통 기독교 국가로서 이슬람권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조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아르메니아는 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하게 되었고 터키, 이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백만 명이며 전 세계에 약



800백만 명의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둘째 아들인 앗수르를 조상으로 두고 있으며 노아 홍수 이후 아라랏산과 반 호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창 10:22,10:30)
아르메니아(혹은 하이크)민족은 히타이트제국에 이어 앗시리아 제국을 이루고 BC 3세 기경에는 로마제국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의 일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바다까지 이르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3. 아르메니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퍼즐 조각

아르메니아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열두 사도 가운데 바돌로매입니다. 그는 살이 벗겨지는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AD 3세기 후반에 그레고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13년간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 티리다테스 3세 (287-330AD)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레고리(257-331AD)의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왕은 301년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함으로써 아르메니아는 최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는 것보다 79년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국가의 권력과 부를 갖게 되면서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 아라비아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의 확장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를 민족의 종교로 받아들인 아르메니아는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 교회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1905년 투르크 오스만제국에 의해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약 150만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 날까지 터키와 투르크 민족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의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투르크 민족을 향한 복음전파와 교회개혁은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터키 8,200만명의 투르크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 및 교회개혁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터키에 있는 투르크 민족 가운데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고 영적 저주와 사망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터키의 투르크 민족 역시 복



바돌로매의 순교



**아르메니아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주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퍼즐,
비밀병기가 될 것입니다**

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망과 저주의 굴레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스만 투르크 민족으로부터 대학살을 당한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의 굴레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두 민족, 두 국가의 온전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터키의 개신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대학살의 죄악을 저지른 과거의 사건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개신교회들을 중심으로 터키의 투르크 민족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SWM 선교회는 아르메니아교회에서 파송하고 터키 반(Van)과 카르스 지역에서 사역하는 두 가정과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아르메니아 젊은이들이 여러 차례 단기선교를 통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터키 선교를 향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슬람의 수많은 도전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지킨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터키의 또 다른 영적 돌파와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르메니아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들 가운데 터키를 향해 선교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르메니아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주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퍼즐, 비밀병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라랏산과 아르메니아 교회



아르메니아 사역 소식

글: 백승환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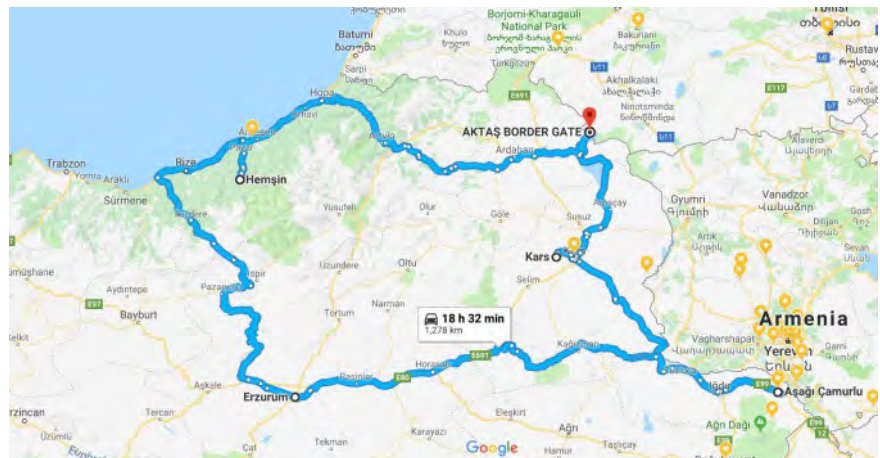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SWM 선교회의 김진영 선교사님, 피터 김 목사님, 그리고이원철 선교사님이 지난 5월 중 아르메니아를 방문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전략이나 많은 지식이 없이, 5년 전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때문에 터키, 이란 이슬람권 선교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지난번 SWM 선교회 리더십 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슬람권 선교를 이뤄가시는 큰 그림(Big Picture)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SWM의 귀한 사역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권 나라들이 변화되고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사역 소개를 드립니다.

선교지 / 아르메니아 개관

-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AD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 현재 인구 3백만 중 아르메니아 정교 신자: 95%, 개신교 신자: 5%
- 해외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안 1,100만 명으로 추산, 전형적인 다이스포라 국가
- 기독교 국가로 전통과 문화가 깊으나 종교적 형식에만 치우진 신앙 때문에 이들 모두가 전도대상이며 성령체험이 필요함
- 아르메니아는 주변 이슬람 국가들인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제르바이잔을 향한 무슬림 선교의 교두보





- 구 소련으로부터 1990년 독립했으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현실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패한 정치, 일자리가 없음, 다른 나라로 침묵의 탈출
- 월드뱅크 2017 통계에 따르면 GDP 1인당 \$3,750 (비교 USA \$59,500)
-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 산 (창세기 8:4)이 아르메니아의 상징이나 러시아와 터키간에 영토분할 협정에 의해 1차대전후 원래 아르메니아땅이 있던 아라랏산이 터키 영토로 귀속



아르메니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

구제사역

- 120명의 불우, 고아 아동을 입양해 총체적인 돌봄
- 에프터 스쿨 프로그램 :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기회 제공 / 청년 교사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의 효과 / 현재 15명 교사
- 220명 고아 장애아동 돌보는 사역
- 무의탁 양로원 노인들 돌보는 사역



무슬림 선교 사역

- 터키 아웃리치 : 오랫동안 선교사로 제자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2달에 한번씩 터키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있음
- 동터키 흑해연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후손 험신족을 집중 대상으로 한 터키 선교 전략
- 이란 테헤란 인근 아르메니안 교회를 거점으로한 선교, 지하 가정교회를 섬기고 돕는 사역
- 7,000명의 아르메니아 청년, 영 커플들을 무슬람권 선교사로 훈련, 파송하는 비전

이벤트 / 프레스 디아스(TD) 사역

- 연 2회 일반인들을 위한 TD : 현재까지 9회를 마쳤고 현지인 수료자가 7백여 명이 배출돼, 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제사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슬람권 아웃리치 참가자로 헌신하고 있음.
- 연 2회 장애 아동과 일부 가족을 위한 장애인 TD "Love Camp" 진행
- 여름 수련회 / 아동캠프, 청년 수련회
- 성령세미나 / 기도훈련 세미나등 각종 세미나 개최
- 성경통독 및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을 통한 청년 제자 훈련

아르메니아 선교지는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

비하셨고 성령님이 모든 사역들을 친히 주관,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보리고개를 넘어가고 있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쉽게 소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마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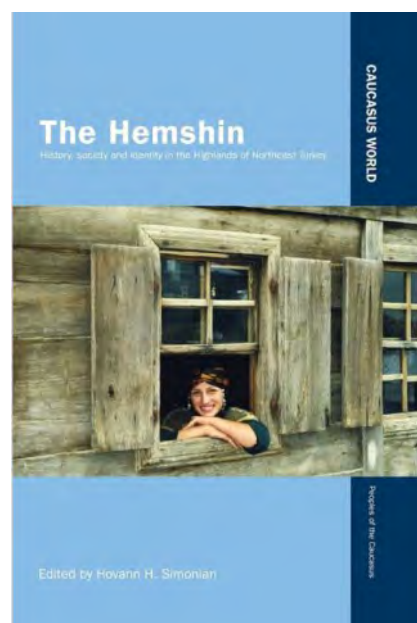
원래는 영적으로 무척 교만한 민족인데 (유대인만큼) 현재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적극 수용하도록 돕고 있고, 주님을 위한 일 즉무슬림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7천 명의 아르메니아 청년들이 선교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인근 이슬람 나라들로 흩어져 나갈때 그 영향력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무슬림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며 담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선교지에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는 삶” (고후 15:31)을 선교지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무슬림의 복음화와 청년을 들어 쓰시기 위해 오랫동안 예비해 오신 선교지, 아르메니아를 위해 강력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르메니아
백승환, 율가 선교사 올림



아래 링크에서 아르메니아 아라랏 미션 사역 사진 및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raratmission>
- 유튜브 <https://youtube/tKMefeZJ3YM> (2018년 사역 리뷰 비디오클립)

안나의 골방 6월의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 GODpeople.com

주님께 기대세요 지나갈 것입니다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37:5-7

작은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되고,
그 실수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고 맙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도 물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물위를 걸어오라는 초청에 발을 내딛지만
생각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작은 실수가 확대되고,
용서를 구했지만 수치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누를 때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보다 바람부는 바다가 더 크게
보여짐으로 두려움이 드는 순간 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 같이,
주님은 보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우리 힘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역과 재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틈만 생기면 원수는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별일이 아닌 것이, 작은 어떤 실수가,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들을 통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때론 위선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건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해 불려고 발버둥치지만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커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오해에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이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을 찾는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에 좋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면 최대한 머리를 써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뭔가를 시도해보지만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었는지
 그래서 엄청난 영적 공격 가운데 노출되었었는지
 이런 실수로 인해 배우게 됨이 너무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동기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관계와 사역, 일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틈 타
 맹공격을 퍼붓는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숨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오해 가운데 있나요?
 수군거림의 대상이라고 느껴지나요?
 당신 편이 아무도 없나요?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나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가서 숨으십시오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마세요 더 쫓이게 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께 나아가며,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교정받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길 구합니다.

그러면 지나갈거예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그분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며
 사랑으로 교정해 주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하시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300명의 숙청 당한 판사들, 검사들은 법률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테러조직 혐의로 터키 정부에 의해 해임된 300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규에 따라 법률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BBC 터키 서비스가 목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선포된 2년간의 국가비상 사태 때 정부령으로 숙청된 판사나 검사 출신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가 안보회의(MGK)가 지정한 테러단체와의 연계 혐의로 해임하였습니다. 해고는 주로 당시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행정 수사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범죄수사도 착수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파면된 판사들과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변호사 협회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협회가 그들의 신청을 거부했지만 후에는 TBB(Turkish Bar Association)가 거부 사항을 기각했습니다.

터키 법무부는 현지 법원에서 TBB의 결정을 항소했는데, 이 결정은 법무부에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항소심도 판결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부 법령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어떤 공직에도 채용될 수 없고, 법무부는 민간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공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숙청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개별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TBB는 최근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숙청 피해자 신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규'에 따라 수천 명의 숙청 피해자들이 개인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최고 선거관리위원회(YSK)는 수요일 숙청 피해자들이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시장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해, 숙청 피해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결과 대치했습니다.

YSK는 또 지난해 6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명의 숙청 피해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출되는 등 숙청 피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4/11/300-purge-victim-judges-prosecutors-barred-from-obtaining-law-licenses-report/>〉





터키 검찰은 굴렌과 연결된 혐의로 소즈쿠 언론인들을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에민 폴라산 (왼쪽)과 네카티 도르구(오른쪽)

터키 검찰은 목요일에 소즈쿠 칼럼니스트, 기자, 언론인들에게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디켄 뉴스 웹 사이트가 보도했다.

터키 법원은 소즈쿠 경영자 부락 아크바이와 직원 고크멘 우루, 매디하 오르겐 그리고 윤 카 유케가레리가 회원 자격 없이 굴렌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비난한 기소를 수락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혐의로 편집장과 편집인들에게 기소된 것을 수락했다. 기도된 이들의 이름은 인터넷 편집인인 무스타파 케틴과 유셀 안과 편집장장인 매티 일마크와 베테랑 칼럼니스트인 에민 폴라산과 네카티 도르구 등이다.

위의 두 건의 수사는 기자들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부과했다. 이 재판은 이스탄불 제37차 고등 형사 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크베이를 터키로 데려 오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소즈쿠 일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이 굴렌 운동 추종자가 당한 것이 불의하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자 이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

폴라산과 도르구는 굴렌 운동의 혐의를 받고 투옥된 터키 죄수들의 편지를 포함하여 여러 칼럼을 썼다.

터키는 2016년 쿠데타 시도의 움직임을 보이면 이들을 모두 고발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굴렌과 연결되어 쿠데타 시도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기소되고 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4/18/prosecutor-demands-lengthy-prison-sentences-for-sozcu-journalists-over-gulen-links/>>





터키 법원, 앙카라에서 LGBTI 활동 금지령 해제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앙카라 항소 법원이 앙카라 주지사 사무국에 의해 부과된 LGBTI(성소수자) 활동 금지를 취소했다고 디캔 뉴스 웹 사이트는 금요일에 보도했다. 이 금지령은 2016년 7월 쿠데타 시도의 여파로 선언된 2년간의 비상사태 기간 중인 2017년 10월에 무기한으로 시행되었다.

주지사 사무국은 보안 우려와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한 자극의 위험을 이유로 LGBTI 영화 및 연극 관련 활동과 수도 토론회 및 전시를 금지했다. 인권 단체인 카오스는 앙카라의 행정 법원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에 반대했다.

협회는 항소 법원에 항의서를 제출했는데 항소 법원은 항의 금지 기간과 범위가 너무 모호했으며 “만약 활동에 위협이 있다면 당국은 금지하는 대신 필요한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다른 한편, 2018년 10월 주지사 사무국에서 부과한 또 다른 유사한 금지령은 아직 사법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4/19/turkish-court-removes-ban-on-lgbti-activities-in-ankara/>〉





이라크, 터키와의 관계 개선

글: 바그다드 - 아나톨루 에이전시

번역: 한국 번역팀



이라크 의회는 터키와 주변의 다른 이웃 나라들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라크 의회 의장이 4월 20일 밝혔다.

모하메드 알 - 할부시는 바그다드 의회의 이웃 국가 정상들과의 연설에서 "우리는 터키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망한 경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등의 국회 의원과 이란 대표가 모여 하루 동안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알 - 할 부시 대변인은 이라크가 테러 단체의 존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라크가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라크가 이웃 국가들에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한 데 대해 이라크 대변인은 "이라크는 급진적인 아이디어와 테러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주변국을 향해 개방 정책을 취한다"라고 말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요르단,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와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도 양자 협상을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hurriyetdailynews.com/iraq-has-balanced-relations-with-turkey-speaker-142809>〉





파키스탄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의 캐나다 도착

글: 에두안 맥커르디와 소피아 사이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CNN),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비비의 변호사인 사이프 울룩은 아시아 비비가 작년에 사형에서 풀려났고,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비비는 편잡 지방 출신으로 다섯아이의 어머니인데 신성 모독죄로 판결되어 파키스탄 종교 극단주의자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 그녀는 2018년 판결이 번복된 이후 가족과 헤어져 안전가옥에서 거주해 왔다. 그녀의 아이들은 이미 캐나다에 있다.

비비는 1년 전 무슬림 동료들과의 논쟁에서 예언자 모하메드의 이름을 더럽힌 혐의로 고소당해 2010년 유죄 판결의 교수형을 선고 받았다. 동료들은 비비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만진 물 양동이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비비는 이 사건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이 복수한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형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은 국제 인권 단체들에 의해 널리 비판 받아왔다. 작년에 그녀는 파키스탄 전역에 널리 퍼진 시위를 촉발시켰다는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그녀의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 이슬람 운동주의자들 TLP(Tehreek-e-Labbaik)는 비비가 석방되면 그녀를 거리로 끌고 나오겠다고 다짐했으며, 판결이 발표된 직후 이슬라마바드와 라호르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다. 이 단체는 2018년 비비가 석방되면서 시위대가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공 기물을 공격하고 자동차를 불태우는 폭동을 일으켰다. 파키스탄 이슬람교도들이 아시아 비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자 경찰이 최루탄 가스를 사용하여 대응했다.

당시 파키스탄의 극우파 이슬람 테히리크- 어 - 라바크 운동 지도자와 수십 명의 지지자





들은 "보호 구금"에 처해졌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LP는 파키스탄 정부와 그 단체인 체결된 협상을 통해 나중에 진정됐다.

장기화되었던 시련

비비의 형량이 감형된 후에도, 그녀는 그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은 형무소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녀는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가옥에서 안전 가옥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돌고 있었다.

이러한 비비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인권 단체는 파키스탄의 형법을 비판했고 전 세계 기독교인은 분노를 보이고 비비를 향해 지지를 했다. 비비의 가족은 지난 2월 교황 프란시스를 바티칸에서 만났다. 교황청은 한 자선 단체의 회장인 알레산드로 몬드르로의 요청에 따라 비비를 "순교자"로 묘사했다. 프란시스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비비의 석방을 요구했다.

비비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신앙을 잃지 말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 내용이 비비가 2012년에 발간한 책인 "여기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다.

파키스탄 총 인구는 2억 명이 넘는데 이중 기독교인은 1.59%에 불과하다. 라호르 사회정의 센터의 실행총무인 피터 제이콥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러한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집단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정의 센터에서는 모독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50%가 비무슬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주요 무장 세력의 공격이 줄어들었지만 파키스탄 사회 내부의 조직적인 편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CNN은 말하고 있다.

편잡 지역에 있는 빈민가 대부분을 기독교 공동체가 두고 있지만 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소수의 기독교 파키스탄 공동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 민주 동맹 연합이 2010년 12월 25일 아시아 비비를 지지하며 라호르에서 개최된 항의 집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Source: <https://www.cnn.com/2019/05/08/asia/asia-bibi-canada-intl/index.html>〉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모든' 예지디의 귀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글: 루다우

번역: 한국 번역팀



예지디 여성이 2015 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라리쉬 성전 앞에서 엄숙하게 서 있다.
피레 사진: 사핀 하메드 | AFP

에리트레아, 쿠르드 지역 - 예지디 최고 영성위원회는 수요일, IS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모든" 예지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극단 주의자들에 의한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도 받아들일 것을 밝혔다.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의지를 벗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데쉬(the Daesh) 생존자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4개항의 성명서에는 하심 타신 사다디 차관이 서명했다. 그 위원회는 가장 높은 예지디 종교 단체이다.

성명서는 예지디 공동체가 "인도적이며 투명한" 방법으로 명예롭게 구출된 사람들을 보살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어린이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예지디 활동가이자 비정부기구인 야즈다의 책임자인 무라드 이스마엘은 성명서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 법령은 우리가 모든 여성 생존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이 특정한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썼다.

민족-종교적 예지디 그룹에서는 모든 결혼과 임신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지디 신화는 인류의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 밖에서의 결혼





은 금지되어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은 말한다.

이스마엘은 다른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것은 종교가 양쪽 부모의 혈통을 통해 전승되는 예지디 신앙의 기초를 위한 확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일원인 패리스 키티는 루돌에게 “강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여성에게는 문제가 없다. [IS무장 세력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

이달 초, 예지디 위원회는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알 바고즈주변에서 마지막으로 IS영토를 탈출 한 예지디 국민들을 찾았다. 돌아온 후, 대표단은 40명의 예지디 여성들과 조만간 쿠르드 지역에서 친척들과 만나게 될 어린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3월 23일 시리아 민주군 (SDF)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IS에 대한 승리 소식을 발표했다. 수만 명의 IS 무장 세력과 그 가족, 많은 예지디 국민들이 데르 예즈조르 동부 지구의 마지막 그룹을 떠났다. 네오 마흐무드 인민 보호 단체 (YPG) 대변인은 4월 6일 루도와의 인터뷰에서 “캠프에서 다세족 가족 중 많은 수의 예지디 아이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설득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와 쿠르디스탄 지역은 심리 사회적인 협력자가 부족하다. 예지디 공동체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개인 기부들과 비정부기구에 크게 의존한다. 영성 위원회의 성명서는 “우리는 국제 사회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자들의 재활을 돕도록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KRG 시역 종교 기부금과 예지디 사무국의 가장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8월 신갈 탈취에 대한 치열한 작전에서 IS에 의해 납치된 6,417 명의 예지디 국민 중 2,992 명의 운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밀수꾼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Source: <http://www.rudaw.net/mobile/english/kurdistan/250420192>〉



이stanbul 시리아 난민 교회 개척자 샤로 간증

저의 이름은 무스타파 샤로이고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형 3명과 누나 3명이 있습니다. 총 7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는 이슬람법을 따라 매일 5번씩 기도를 했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1997년, 둘째 형이 아주 나쁜 형이었는데 레바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형이 나쁘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형이 시리아로 돌아왔을 때, 저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귀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형이 시리아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또 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12시경이었습니다. 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거야!”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형을 놀렸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내게 와서 “너는 예수님이 너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예수는 선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라고 답했습니다. 형은 저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고 귀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느낌이 없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귀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형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신약성경과 설교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 성경을 발로 밟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찬양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달 후, 1998년 8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와서 복음을 나눠주셨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레바논에서 살았고 그때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 문제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복무 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군에서 도망 나와 시리아 아프린에서 터키 쉬르낙으로 와서 후에 이stanbul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터키에서 주님은 제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막으셔서 ‘아르만지 하난’과 함께 이stanbul에서 시리아난민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민 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후원한다는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제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 시간이 되면, 내가 너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곳에 4-5년을 머물러야 한다.’

며칠 후, 저는 새벽5시에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지도를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보낼 장소를 그리도록 하라.’ 저는 지도를 가져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 저는 하나님께서 지도에 그리게

한 지역에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바샤 웨이르”라는 저희 시리아 난민들이 1만 여명이 모여 사는 열악한 환경의 새로운 장소였습니다.

제 아내는 먼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주세요.” 2주가 지나자, 제 아내가 이사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집을 빌렸고 평화의 사람 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신실한 무슬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브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기독교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브리’라는 형제가 평화의 사람 역할을 하여 저희 가정 이웃들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 주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었던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바른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7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그룹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쿠르디스탄 예지디
난민캠프 치과진료 사역

지난 4월 22일~5월1일까지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보고 (2)

저희는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대접받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글: 조요한 사역자



터키에는 매년 여름에 많은 단기팀들이 아웃리치 사역을 위해 방문합니다. 저희도 이 기간에 베델 교회팀과 함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집중적으로 난민 성도들을 위로하고, 작은 것이지만 준비해 간 선물과 생필품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매년 4월 23일에는 유럽과 카톨릭 국가에서 잘 알려진 성자 조오지의 순교일을 기념하여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날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뷰육아다라는 큰 섬을 찾아 오게 됩니다. 이 특별한 날에 맞추어 저희가 그 섬에 가서 치유 기도과 더불어 복음 팔찌를 나누어 주며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그곳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터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뷰육아다 사역을 마친 저희 팀은 앙카라, 찬크르, 카스타모누에 있는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사역을 진행해나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그들의 간증은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에서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대접하는 손길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사랑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대접받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들 난민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특별히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글: 홍갈렘 사역자

저희 팀은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의 심현석 목사님과 이미리 권사님 두 분과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이은옥 간사님과 이원철 선생님과 나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었다.

팀원의 숫자는 한 차에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팀이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을 하는 베테랑으로 모여진 팀이었다. 심현석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터키에 아웃리치를 많이 오셨었고 해마다 킹덤 아웃리치 사역에 어떤 모습이든 참가하셨던 분들이어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것이나 사역에 기대치가 달랐던 것 같다.

우리 팀의 가장 큰 목표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아르만지 부부와 샤디 부부 그리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시리아인 교회인 예니 야샬 교회를 방문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던 샤로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 모임 전에 두 번 영상통화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일정을 확인을 했다.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짧아서 이 두 번의 영상 통화 및 준비 시간이 꽤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부육아다 사역

해마다 찾아오지만 부육아다 섬에 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 올해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아웃리치 팀외에 이스탄불 YM팀의 몇 명이 합류하여 사역을 같이 하였다. 터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어도 터키어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전도지가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로든 아니면 팀으로든 함께 협력해서 할 때, 기도하는 일이나 복음팔찌 나누는 일이나 효과적으로 진행 되는 것 같다. 복음 팔찌도 많이 나눠주었지만 나누어줄 때마다 최대한 복음팔찌의 의미를 나누려고 노력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는 복음팔찌 설명서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물려드는 사람들에게 복음팔찌만 나

눠주고 있었는데 내려가던 한 터키 목사님이 큰 소리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해주셨다. 팔찌가 중요한게 아니라 팔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목이 아파라 큰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나서 다시 길을 내려가려는 데 우리 팀원 중 한 분이 가서 포옹을 해주며 고맙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분이 터키까지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터키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감사를 표해 주셨다. 터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고백이 내게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같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 땅에 와서 살아주어서, 그리고 수고해 주어서 고맙다는 고백이었다.



샤로사역자가정, 시리아음식

샤로 사역자 가정 방문

샤로 사역자 가정이 우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해주었다. 시리아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다. 양도 양이었지만 하루 종일 준비했을 것 같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대접하려는 이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찼했다. 샤로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새로운 지역(시리아 난민이 1만명 모여 사는 빈민촌)으로 옮기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은혜롭고 흥미로웠다. 특별히 이 지역에 들어올 때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실제로 그 평화의 사람

을 만나게 된 이야기와 그 평화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 이 지역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뷰옥아다 섬 사역하는 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사람들이 섬에 몰려들어서 하루 동안 특별하게 만나게 되지만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도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구하고 관계를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다.

샤로 집에 찾아온 세리 자매



세리 자매는 임신 8개월 짜 인데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우리를 보러 샤로집으로 찾아와주었다. 남편은 일 자리를 못구하거나 일을 해도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재는 부부가 흩어져 다른 친척집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예수를 경험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자매와 어린 자녀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자매가 참된 복을 발견하도록... 나중에 샤로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지금은 새집을 구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출산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기도 응답을 듣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 빈민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필요는 너무 커 보여서 이 거대한 필요 앞에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듣는 것은 너무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된다.

아르만지 사역자 교회(예니아삼) 방문

목요일 오후 평일 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모여서 열심히 'Peter's Boat' 교회개척자 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르만지와 사디 이 두명의 리더 외에 8명의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오늘은 율기를 공부하는 날이라 열린 토론토 하느라 공부 시간이 길어졌지만 보통 날에는 공부 후에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한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내내 이런 모습을 터키 교회 청년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내 들었다. 이제 터키 내에 시리아 난민 교회가 터키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할 때가 금방 올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다면 터키 교회가 와서 배우고 그레아지 않을까 싶다. 한국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배우고 가는 곳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Peter's Boat팀과 함께

예디쿨레 시리아 난민 센터 사역

이스탄불 성벽 안쪽에 예디쿨레라는 성이 있는데 오스만제국에서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유적지가 있다. 바로 그 성벽 옆의 낡고 오래된 2층 건물이 난민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 난민들이 이



시리아 난민 센터



어린이 사역

스탄불로 오게 되면서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낙후된 이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가 시작되었다. 재미있게도 이 센터를 시작한 사람은 믿지 않는 터키인 교사이다. 처음에는 스웨덴 대사관이나 유엔쪽에서도 지원이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지원이 많이 끊어진 상태이다. 여기에 한 한국인 사역자 가정이 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프로그램에 많은 부분을 이 부부가 짊어지게 되었다. 이곳에 우리 팀들이 가서 이 센터에 오는 어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될만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지금은 많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터키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터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는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은 많다. 학교 수업들이 터키어로 진행되어서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들... 시리아에서 떠나 난민이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훨씬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상황, 왕따 문제들도 많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일 때는 미뤄두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꼭 다뤄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 언어 교육 등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인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

이번 킹덤 아웃리치 이stanbul 팀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 같다. 바쁘게 여러 지역을 다니지 않고 이stanbul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동안 길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이stanbul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된 것 같다. 특별히 난민으로 와서 이제는 도시의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아웃리치를 통해 맺어진 관계들이 더 깊은 향기를 내는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로 드러본다

난민으로 와서 이제는
도시의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곳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허드슨 사역자

주요사역

79기도회 참석

79기도회에 아웃리치팀과 함께 이집트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만나 뜨거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철진집사님이 ODPC교회의 소개와 난민 사역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올해 라마단 기간에 더욱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열린문교회 집사님과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30일 금식 기도 체인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잘 동참할지 걱정됐는데 감사하게도 30일 금식기도 체인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확신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중동은 급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기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1,400년간 없었던 이슬람권의 부흥의 새로운 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난민 학교 사역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난민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더불어 선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작년 4월에 했던 영어 노래와 울

동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인형극을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 몸을 그려서 눈, 코, 입, 손등을 직접 그려 넣는 시간도 가지면서 아이들이 온몸으로 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반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누며 부활의 의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집사님들은 아이들에게 한 명씩 선물을 주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자 가정 방문

난민 가정을 방문하기 전, 저희는 먼저 레다무싸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다무싸 목사님은 작년 12월 큰 교통사고를 당하





셨고, 3일 동안 코마에 계셨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베이트 아일라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열린문 교회팀도 레다무싸 목사님의 사고 소식을 이집트에 계신 선생님을 통해 듣고, 간절히 기도했던 터라 목사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의 회복되셨고, 아직까지 목사님의 오른쪽 얼굴의 근육과 신경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저희 팀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가정 방문

총 2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마다 4가정을 방문을 하여, 총 8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수님을 영접한 라그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파라스와 라그다 가정 방문

저희는 첫 가정인 파라스와 라그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파라스와 라그다는 시리아 주 종족이 아닌 알라위 종족인데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파라스 남편분과 라그다 아내분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레다무싸 목사님께 제자 양육을 받고 계신데, 저희 열린문 팀은 레다 목사님과 체크 선생님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변 이웃들로부터 많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주 종족인 시리아 순니 무슬림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있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큰 아들 가이즈는 12세로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가이즈와 키모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도록,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함마드와 알리 가정 방문

저희는 무함마드 가정을 방문했고, 알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 온 지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가정인데요. 무함마드 가정은 시리아에서 수단, 그리고 수단에서 이집트로 4일 동안 사막 길을 넘어올 때, 강도들을 만나서 1,500불을 강탈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고 레다무싸 목사님과 체크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준비해 간 선물들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특별히 자매들을 위해서는 크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이었지만, 저희가 방문했던 모든 가정에서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리아 난민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문했던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라마단 기간에 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방문

두 번째 팀은 네디르 사역자와 소아드가 최근에 몇 번 방문했던 가정을 방문하여 더 구체적으로 좋은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3가정에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와파가정과 마흐무드가정



은 톡톡(작은 특력)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두 가정에 가서 모두 열린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흐무드 가정은 시리아에서 기독교인 좋은 친구도 있었고, 예수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들에 좋은 소식이 뿌려졌는데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모습과 전통을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산 절벽에 새겨진 많은 조각과 글귀들 속에서 '축복받은 내 백성 애굽이여'의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예수님 피난 교회는 과거 카이로의 바벨론 성채 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 인근의 위치로 신뢰할 만한 곳입니다. 1,500년 전의 교회의 양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교회 탐방이었습니다.

이집트 교회 탐방

카스르드보락 교회

이집트 교회는 4월28일, 중동에 개신교회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인 카스르드보락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찬양팀과 연극팀을 통해서 감동적인 예배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동굴 교회 및 예수님 피난 교회

쓰레기 마을의 산기슭에 위치한 모까탐동굴 교회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콕틱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곳에 이집트 콕틱

마무리

2018년 4월에도 열린문 교회팀들이 와서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집트를 방문해주셔서 난민 학교, 난민 가정들 방문, 난민 사역자 격려까지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이곳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성숙하게 섬겨주셔서 작은 사고 하나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김재연 집사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삼순 주는 133만명의 북해 연안 지역으로 열린문 교회 삼순팀은 삼순 교회를 기지로 삼순 및 주변 도시인 아마시아, 초룸, 시놉의 이라크, 이란 난민 가정 방문 사역을 하였다. 삼순교회는 오르두 개신교회와 더불어 흑해 연안의 존재하는 2개의 교회로 터키에베, 이라크 난민 중심의 아랍어 예배가 있으며 터키인 오르한 목사님, 이라크인 아르칸, 이란인 사힌 교회개척 사역자가 연합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삼순의 이라크 난민인 알리 형제는 모하메드 후손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이슬람법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제들로 부터 살해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놉의 이란 난민 가정 공동체를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고 2명의 형제와 3명의 자매가 결신하는 열매가 있었다. 삼순 남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초룸에서는 내다 자매 가정을 중심으로 31가정의 이라크 난민 공동체 모임이 있었다. 내다 자매를 교회개척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놉의 이란 가정방문 사역을 통해서 한 자매가 결신하는 열매도 있었다.

삼순 동쪽으로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이을용 선수가 활약한 축구팀으로 유명한 인구 80만 인 트라브존 주를 방문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기도 및 위로 사역을 하였다. 트라브존에서 동쪽으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인 리제를 방문하였다. 이 도시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루디아 자매를 만났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후 이름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독교로 변경한 루디아 자매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리제의 문을 열것을 기대하며 믿는 가정이 한 가정만 더 있으면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초룸 개신교회를 방문한 버지니아 열린문교회 팀과 아르칸 사역자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김재연 집사



자신을 학대한 시어머니를 용서한 '젤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글: 임동혁간사 (SWM-Korea)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가치안템의 구석구석을 심방 하러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극히 적은 이 땅에 주님이 심어 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잃은 양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고 더 찾아가야만 하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들이 사는 지역은 외지고 황량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고서는 환영도 방문도 없는 거리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막14:3)

예수님 때 당시 문둥이라면 하늘의 별을 받은 사람들이고, 길을 걷다 누군가를 마주치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며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보잘것없고 희망 없는 모습 속으로 찾아가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의 동선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초대에 이끌려 시리아 난민 젤리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무너져만 갈 것 같은 허름한 돌벽 사이로 들어가서 때론 카펫 위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젤리하는 감사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불로 짓이기는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어머니를 용서한 불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슬람문화의 여성으로 살았던 삶이 치열하다 못해 수지로 얼룩졌겠지만 젤리하가 자신을 학대한 시어머니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병으로 몸져누운 그녀를 위해 몸을 씻겨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학대를 받았으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유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모성의 힘을 가지고 4명의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들이 사는 구석 구석은 보잘것 없어도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젤리하와 딸 에이미(15세)

그녀의 고백 앞에 팀원들은 모두가 숙연 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충격속에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기도로 이 집을 축복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들의 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황폐한 땅들을 해매는 떠돌이 이방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은혜가 감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은 떠나기 전에 한번 더 축복송을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되리

젤리하의 아들 모함메드(6세)가 축복송을 불러줄 때 감동을 받았는지 기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기타를 건네 주자 금세 줄을 튕겨가며 몇 마디를 연주했습니다. 참 신기한 광경이었고 문득 아이를 쳐다보다가 축복의 통로가 이

작고 어린 꼬마아이에게 열리고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터키의 다음 세대들에게 악기와 노래들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키 땅에 수년내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오실 날에 이들은 주님을 노래하는 군대로 서있을 것입니다. 이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팀은, 가치안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스탄불에 도착해 마지막 주일 사역지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이스탄불의 아가페교회(무라트 구나이 목사)에는 일평생을 터키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아그네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아그네스와 함께 특별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그네스를 감동시키셔서 1966년, 20대의 젊은 몸으로 스위스로부터 건너와 터키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가 섬기게 하셨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만이 터키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고, 터키인 그리스도인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네스는 그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부부가 되어 터키 땅에 교회들을 세우며 교회학교를 세워 나가는 일에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어느덧 터키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졌고 말 그대로 성령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수가 더해져 가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시키는 통로로 아그네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분열과 쫓김과 핍박이 늘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를 쉬지 않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였고 교육과 여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더 집중해오면서 지금의 나이에 여성사역과 캠프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하에는 한 명의 딸과, 세 아들을 키워내 성공회 성경번역과 어린이 캠프사역, 아가페교회 사역(무라트 구나이 목사), 기독교방송 번역과 디자인, 기독교 라디오방송국 일과 음악교육 등의 분야로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네스를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떠난 우리 팀에게 터키 땅에 감춰진 주님의 흔적을 발견한 것같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아그네스와 짧은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동안, 그녀의 증언과 음성은 과장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러나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팀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그네스 선생님, 평생 지내오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터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터키 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무라트 구나이 목사 부부



아그네스는 이제 터키 땅을 더 사랑하며 터키 땅의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일생의 간절한 소망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그네스 선생님, 선생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그네스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지만 진지하며 평온한 입재의 기운이 방안에 가득했습니다.

아그네스의 일생을 관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인터뷰를 진행한 팀원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움직임を 경험했습니다.

이제 터키 땅에는 시간이 흘러 아그네스의 전도함 없이도,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 들을 수록, 터키내에서 하나님이 일구어 내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터키에 그리스도인이 1명일때 그토록 은혜를 간절히 바라던 아그네스의 울부짖음이... 터키 땅의 밭을 일구어서 추수되는 시작점이 될 줄을...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그네스의 충성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20대의 젊은 청년의 몸과 영혼에 가득 채워 주셨을 뿐 아니라, 소망이 없던 땅으로 건너와 정착없이 떠돌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늘 동행하시며 당신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분명 아직도 우리가 알지못하는 수많은 시간과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떨게 하고 타오르게 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62:7).**

계속적으로 중동과 터키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소식을 전파하도록 기도와 방문을 쉬지 않고 이어 가기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킹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글: 양승권 집사(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



맨앞줄 가운데 양승권 집사

터키로의 첫 아웃리치는 저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 솔직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겸손해지며 남은 삶을 이 땅의 사라질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할 것 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흔히들 어린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묻곤 하죠? 순진한 어린 아이 때의 대답은 대부분 “대통령이요”, “판사요”, “의사요” 등등 큰 꿈을 말하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턱도 없는 큰 꿈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때는 대통령이요 했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즈음에선 국회의원이요 그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면서 점점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기준치가 낮아지더니 결국에는 더도 말고 내 주위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자는 목표 아닌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남들과 경쟁하며 더 잘 나가려는 마음에 한시도 마음에 쉼

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탁월한 게 없어서 “목표”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항상 주위에 있는 어울리는 사람들 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고도 안 한 척 축구 시합을 앞둔곤 체력을 키우기 위해 그 잠 많던 고등학생 때에도 남들 자는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고 나서 또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할 정도로 열심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온 시간이 많아서 인지 몰라도 내 앞가림은 나 자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유가 없이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모태 신앙”이어서 어머니 따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 날에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중간중간 사춘기 때와 사회생활을 시작으로 발견한 “재미”있는 세상으로 인해 잠깐 방황하던 때를 빼곤 교회 다니는 것은 저의 삶에서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남들과 같이 수련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선교회 회장까지도 할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방향하고 또다시 교회로 돌아오곤 하는 반복된 생활을 하던 중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의 열심이 과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앙심에서 온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념”으로 교회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는 것어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 생활이 못마땅하셨는지 임종하시기 전에 제게 다음의 2가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네가 공인 회계사라서 돈도 잘 버니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신의주 제일 교회를 꼭 재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셔서 옛날 한국에서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 다 돈 잘 버는 줄 착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것도 임종시 유언을 말씀하시는데 전 무늬만 공인 회계사여서 생각하시는 것 만큼 돈도 못 번다고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편이라서 통일은 아직 먼 후의 일인 것 같고 아직 시간이 많기에 어머니와의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신념이 아닌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간의 방황을 청산하고 주일 성수를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모든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때, 너무도 많이 접했던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 여태껏 노력해도 채우지 못했던 마음속의 허전함이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간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

었던 공허함이 채워지고 또 “경쟁의 삶”으로 느껴졌던 무거움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마태복음 25장 내용 중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 캠페션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김 요셉 목사님 설교 중 소개된 책 “래디컬”(데이비드 플렛)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생각지 않은 어려움은 딸 아이(헤빈)의 과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팔 계약을 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하던 중 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아이가 낮은 얼굴을 보고 누구냐고 묻기에 무심코 차조지종을 설명하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에이전트 앞에서 통곡을 해 난감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학교 친구들도 너무 좋고 해서 이사 가기 싫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에이전트와의 만남을 간단히 마무리하고 딸아이를 어떻게 설득 할지 고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주기적으로 오는 캠페션 아이들 사진이 올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그 아이들을 후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빈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헤빈이가 싫으면 이사 가지 않아도 되지만 헤빈이가 양보하고 이사 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무룩했지만 자신의 결정과 헌신으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어린 헤빈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예쁘고 대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헤빈이의 마음과 결정에 예뻐하고 대견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보고 대견해 하고 예뻐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수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잘났다고 튀는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줄이는 비용으로 헤빈이 대학 교육자금이나



삼순교회 앞에서

마련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상기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팔 집 리스트에서 내려놓았던 저희 집을 올해 초 다시 올리고 처음으로 가는 아웃리치를 터키로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이 팔렸습니다.

이사 날짜는 아웃리치에서 돌아오는 이튿날로 잡혔고 당장 이사 갈 집도 찾아야 하고 용자 문제 신청 등등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시간에 아웃리치를 간다고 하니 제 아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많은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터키로 떠나야 하는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어떻게 하면 이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와 안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터키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집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 요리를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저는 아웃리치를 안 가도 될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겼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시 여기게 되어 화상도 하나님의 섭리 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사할 집에 대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하고 이자도 평소 때 같았으면 낮은 이자를 얻기 위해 기다렸다가 이사할 날짜 임



아마시아 이라크난민가정 방문

박해서 결정했을 것을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떠나기 전에 결정하였는데 그 이자율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이자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뭉야.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 보니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팔에 입은 화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팔 화상의 위치가 좌석 팔걸이에 닿는 곳이라서 다소 긴 비행시간 때문에 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네 번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11시간의 긴 비행 시작으로 부터 돌아오는 비행기까지 모두 “제 팔의” 편안 함을 위해 네번 모두 제 옆좌석을 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왼쪽 자리가 아니라 오른쪽 팔걸이를 접을 수 있도록 모두 오른쪽 자리를 비워 주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번 째 네번 째에도 제 오른쪽 옆자리가 비어 있기에 확인이라도 하듯 비행기 안을 둘러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터키로 가는 첫 비행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 비행기가 만석인지 몰랐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영상 정리를 하다 터키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빈 자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제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반응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이런 제 모습이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 가장의 울먹임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양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 뒤의 변한 제 모습입니다. 평소엔 그냥 우연의 일치로 흘러보냈을 것을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빈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열린문교회 출석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성적인 제 성격과 차갑게 보이는 제 외모로 인해 쉽게 먼저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인데, 이번에 화상을 입은 것을 빌미로 송, 음 권사님 두 분은 저를 누님과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또 저의 상처로 인해 여러 자매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아웃리치, 그것도 처음 가는 사람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터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온다 라는 생각보다 현지 사역과 사정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어느 지인의 말을 듣고 저의 신앙생활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 해지기 위해 아웃리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카이로스 수료증, 말씀 묵상 시간에 흔히 하는 말씀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적용하기를 너무 쉽게 써 내려가고 있는 제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 행함 없이 참여할 때 생기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것은 선교는 “doing(행함)” 만이 아니라 “being(존재)” 이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읽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being(존재) 은 doing(행함)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

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생각 한다 고로 존재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저로 아웃리치를 신청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솔직히 제겐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주일마다 나가고 십일조도 꼬박꼬박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성경공부도 꾸준히 하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주말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입양해 도와주고 있었고 또 더 많은 작은 자들을 돕기 위해 집까지 팔았고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고 성지 않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웃리치까지 간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교만함은 터키에서 난민 가정을 방문하는 순간 저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도록 한순간에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 가장의 울먹임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양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분위기에서도 소망을 갖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 난민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터키 아웃리치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저만 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떠날 때 그 다음은 계획하지 않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벌써 내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글: 박 윌리엄 목사 (레이크뷰연합교회 EM)

터키는 이슬람 사원이 많고 교회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전형적으로 2개의 뿔 모양의 타워가 있는 원형 건물 구조로 구별되는 이슬람 사원은 거의 모든 거리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로 상징된 교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5시에 각각의 뿔 모양의 탑의 스피커에서 무슬림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루 동안 네 번 더 무슬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터키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내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 주신 몇 가지 경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터키 국경일인 4월 23일 화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크뷰 선교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많은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부육아다 큰 섬 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매년 이 특별한 날에 기도를 원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터키 이스탄불 근처의 마르마라해 (Sea of Marmara)에 있는 이 큰 섬을 방문합니다. 약 6만에서 7만 명이 세인트 조지 정교회 (이 섬의 꼭대기에 위치)에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이며, 교회가 위치해 있는 섬의 꼭대기에 감겨져 있는 실을 풀어서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옆에 서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부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오른쪽에서 5번째: 박윌리엄 목사

것이 처음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주와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게 역사하시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의 남은 기간 동안 저희 EC(영어권) 팀은 김종훈 사역자가 시작한 난민 사역 (앙카라 지역 아프간 난민을 위한)에 참여하여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가족들과, 두 개의 빅 드림 스쿨 (Big Dream Schools)을 방문하여 아프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의료 치료 사역에 참여하며, 다른 KC(한어권) 팀이 개최한 외상 및 치유 세미나에서 짧은 치유 세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일들은 기도로 옷 입혀졌고, 우리는 상처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들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 갈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터키에 살고 있는 난민들과 그들의 영적 삶에 대하여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증들과 갈등을 들음으로 그들의 증오, 비통함, 혼란에 대한 내적인 치유의 필요에 관한 더 많은 통찰력과 연민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천 아프간인들을 만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이 매일 무슬림이 아니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하고, 성경을 펴는 것에 대해 확실히 불편해 했습니다.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에서 종교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난민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는 우리 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어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 수 있었던 것이 진정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1주일간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에서 경험한 것을 EC와 KC의 레이크뷰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년에 1회 선교 여행이 아니라, 레이크뷰가 매년 2 ~ 3 회 터키 팀을 파견하여 "연례"선교 여행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 영적으로 죽은 자의 마음을 열어 주기 위해 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아들여, 담대히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제자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포용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글: 이재진 선교사 (SWM Korea 대표)



손의 치유



영접 기도 후 기도



복음 제시 & 전도

SWM Korea 팀은 각기 다른 교회와 선교회에서 모인 10명의 헌신 자들로 구성되어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영성과 경험들이 한데 어우러져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이번 여정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터키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착한 첫날 밤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적응하기도 전에 나가게 된 뷰육아다 섬 전도 사역은 무슬림 영혼들을 처음 만나는 긴장과 떨림 속에 출발하였습니다. 섬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팀의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하며 테이블이 다 준비되기도 전에 처음 기도를 받으러 오신 50대 여성의 첫 마디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였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작년에 뷰육아다 섬에 와서 팀들의 기도를 받고 난 후 자신의 마음안에 평안과 기쁨을 처음 느끼게 되었고 1년을 기다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짧은 간증을 듣고 나니 처음의 긴장과 두려움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복음 전도와 영접기도, 팀들의 치유, 축복 기도들이 예배팀의 경배와 찬양과 함께 조화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의

색이 새까맣게 되는 병이 있으셨던 어떤 할머니는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는 중에 손의 혈색이 돌아와 손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깊이 앓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복음 팔찌와 전도지를 열심히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주 예수님을 높이며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하루 팀 전도를 통하여 61명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중 41명이 결신카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팀은 이들이 지역 교회들과 잘 연결되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SWM Korea 이스탄불 팀은 문경희 선생님, 존 박 선생님과 함께 에센릭(평강)교회를 중심으로 터키 현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에센릭 교회는 설립 3년을 맞이하여 최근 6개월간 전도를 통해 90여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11가정을 심방하여 간증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루스트는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돌아와 신학을 공부 중임



에센릭교회 예배



루스트 형제 가정

니다. 저희를 만나기 바로 전 이사야서를 읽고 공부하다고 많은 은혜가 있었다며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하는 형제였습니다. 전 직 권투선수로서 운동을 참 열심히 하였는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었고 불미스러운 과거의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잘 해결 되도록 기도하며 아기와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무랏은 예수 영화를 보고 진리를 찾다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눈의 동공이 확장되는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무랏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아리프는 진리를 확신하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무랏, 아리프, 수아 형제 방문



무랏 형제 사업체 심방



아흐멧 & 마리아 가정



마리아 자매



투우체 자매 침례식

또 다른 마리아 자매는 루마니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에센릭 교회의 전도자로,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돕는 자였습니다. 남편이 정계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주요 지도층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투우체 자매는 남편의 반대로 2년간 세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세례식 전 치통으로 힘들어했는데 세례 후 치통이 사라지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수아형제 가정을 심방하였는데 저희 팀이 떠나는 날 아침,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영접 기도하며 새 생명의 탄생

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다음날 수년 동안 자신을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괴롭혀왔던 터키 마피아에게 사과를 받는 삶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에센릭 교회가 터키의 영적 부흥과 중동 지역의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후 저희 팀은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분들과 공동체의 결정으로 교회 개척자 한 가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10명의 작은 발걸음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중동, 이슬람권 선교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짐을 같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글: 심현석 목사(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부목사)



뷰육아다섬 전도사역

저희 이스탄불팀은 홍갈렙 선생님의 인도 하에 오렌지카운티한인 교회에서 파송된 2명(심현석 목사, 이미리 권사)과 본부팀 2명(이은옥 간사, 이원철 선교사)이 한 팀이 되어 열흘간의 이스탄불 아웃리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다음날인 4월 23일(화)에 뷰육아다 전도를 시작으로 시리아 난민사역자를 방문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심방하며 기도와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연합으로 모인 우리 팀원들은 어느새 일당백의 영적 군사들로 무장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회로 모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 옷매무새를 단단히 고쳐 매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 행하여주시도록, 모든 아웃리치팀과 비전트립팀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김진영 선교사님과 본부 스태프진들의 영적 강화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감격의 시간이었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아웃리치 사역으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시리아 난민 출신인 샤로 사역자의 집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리아식 만찬을 풍성하게 나눈 후에 간증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샤로 사역자는 기도하던 중에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 1만 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집을 이사하여 그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그는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분을 만나게 하였고 그 ‘평화의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사역을 확장해가고 있다는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임



난민성도가정 방문



샤로사역자 가정방문

신한지 8개월이 된 여자 성도님(쉐리)이 함께 오셔서 남편의 안정된 직장과 순산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는 샤로 사역자의 부모님과 조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 팀은 아르만지 사역자와 샤디 사역자가 섬기는 시리아 난민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중에 모여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Peter's Boat라는 제자 훈련 시간에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8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참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르만지 사역자에 의하면 그들은 6개월 간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여 말씀을 공부할 수 없기에 아예 훈련생을 모집할 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된 형제들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Peter's Boat 사역이 확장되는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은 언어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주님이 모든 지



Peter's Boat훈련팀과 함께

상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다시 찾은 시리아 난민 교회(예니아삼)의 주일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60여명의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포된 아르만지 사역자의 열정적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은만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은 예배의 감격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식탁의 교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에게



시리아난민 어린이 사역



풍선놀이

도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미니 올림픽과 풍선아트, 그림 그리기와 사진 열쇠 고리 만들기 등을 통하여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영원토록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홍갈렘 선생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YM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현지 선생님들의 사역 나눔과 비전 나

눔, 그리고 개인적인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스탄불 아웃리치팀의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팀원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SWM선교회의 스태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19년 아웃리치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니아삼 시리아난민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카라빅, 카스타모누!

글: 장경일 목사(원 패밀리 교회)

올해도 우리 원 패밀리 교회(이하 OFC교회)는 '6명의 가는 선교팀' 그리고 남은 모든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팀'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던 카라빅...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의 영혼들을 위해 한 이란 난민 메지드와 멜로디 부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OFC 교회는 그 교회를 후원하며...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같이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영의 양식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에 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 성 아굽의 우물로 향해서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사역은 영의 양식으로 표현하신 말씀을 품고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2~34)**

그렇습니다. 우리 OFC는 선교지를 향하는 6명의 가는 선교팀과 보내는 선교팀이 연합하여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성취하며 영의 양식을 이 시간을 통해 섭취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러시아를 걸쳐 장장 19시간을 통해 새벽 2시경에 이스탄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날 부육아다 섬 사역이 있었기에 비록 새벽 2시에 도착했지만, 새벽 5시 30분에 사역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4월 23일, 많은 터키 사람들은 이날 이 부육아다 섬에 와서 기도를 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섬 밑에서부터 실을 풀면서 올라오면서 기도를 하는 데 섬의 정상 부분까지 실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올라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팀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 단체들은 길가에 서서 기도 받

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심껏 기도를 했습니다. 섬을 올라갈 때는 알라에게 빌고 내려올 때는 예수님께 빌고 비록 이슬람권 안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신이라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팀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에게 따스함을 느끼며 포옹하기도 합니다. 종종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터키인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으신 권사님들의 기도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기도해 주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심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의 아들이 대 학교에서 교수들과 친구 간에 많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기에 그를 위해 기도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갈등의 원인이 영의 공허함 즉, 영의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저는 그를 위해 그 여인과 같이 기도했고 그 여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 1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



기도응답 받은 터키인

기를 합니다. '조금 전,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현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 팀에게 영적인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섬을 내려오는 순간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 사람들 중 너무 오래 기다려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한 그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줄 아시나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인간은 전액 장학금과 미국 유학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영혼 구원과 제자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혹, 제가 그 학생을 미국에서 만나 전도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고 싶었지만, 우리는 배를 타기 위해 그룹 기도를 끝으로 뷰육아다 섬의 사역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6시간을 이동하여 카라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했던 카라빅 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 받은 메지드와 멜로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심방이 시작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심방하신 것 같이 우리 팀은 하루에 한 가정씩 심방하며, 그들이 준비한 만찬을 먹으며 그들의 난민 생활의 아픔과 슬

픔에 동참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난민들이었습니다. 종교 핍박 때문에 자국을 포기하고 터기로 온 분들입니다.

터키 언어가 잘 안되어 주변의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 불안한 정서, 타국살이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떨시 등... 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팀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전원일기 분위기 아시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웃음, 손짓, 언어... 도시에서 느끼기 드문 순수함, 다정함, 따뜻함, 감사함, 축축함... 만찬이 끝나면 곧 이어서 나오는 차이티... 우리가 차이티의 잔을 비우는 순간, 또한 잔을 따라주는 그들의 따뜻한 손길...

테이블에서 먹는 것보다 바닥에다 요를 깔고, 그 위에 플라스틱 보를 깔고 음식을 먹는 문화 가운데 옛 한국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 중 하나가 5살짜리, 10살, 14살의 아이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어른들과 같이 웃으며 삶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문화가 매우 부럽기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가 떠나는 밤 11경까지 같이 울고 웃었고, 우리가 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이란 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터기로부터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현 터기 정부는 모든 난민들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카라빅을 떠나 시내버스를 타고 카스타모누 지역으로 향합니다. 약 5년 전 길예평 선교사님 가족이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서 예수의 깃발을 꽂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직면하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5년간의 사역 스토리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지드와 멜로디 내외와 만남

Houshang & Shohre 가족과 함께
아들, Pouriya, Ali3대 재앙을 극복한
히바 & 베안 가족과 함께
아들, 후만 딸, 비타Saeid & Maryam 가족과 함께
아들, Arsahm 딸, Anitai

그 날 저녁, 히바와 베안 내외, 아들 후만, 딸 비타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이 가정은 소위 터키에서 3대 재앙이라는 칭함을 받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3대 재앙이 무엇인 줄 알고 싶으십니까? 첫째, 난민이라는 것! 둘째, 쿠르드 족이라는 것! 쿠르드 족은 터키인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종족입니다. 소아시아와 중동에 약 4천만이 넘게 흩어져 살고 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언제가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항상 터키 정부는 쿠르드 족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터키의 3대 재앙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과 역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모함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했고, 수 많은 성령 체험을 경험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편은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히바는 터키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난민, 쿠르드족,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

했습니다.

우리 OFC는 재정의 장애물을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초월하여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협력하여 카라빅의 유일한 개척교회와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교회의 인원도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의 사역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 재정을 보낸 것 같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후원한 것 같이, 우리 OFC는 카라빅 교회와 카스타모누 교회를 후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을 현대에 사는 우리 OFC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충만한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요 4:32)

사랑하는 OFC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웃리치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매년 귀한 사역의 중심역할을 감당하시는 SWM선교회 모든 분들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연합안에서 이루어지는 대 추수

글: 리베카 선교사

실크웨이브 선교회를 통해 열방에서 모인 150명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연합 하여 13개 팀으로 나뉘어 터키 각지와, 북 이라크(쿠르디스탄), 이집트를 섬기고 왔습니다. 또한 터키에 거주 하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고 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시며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수 사역을 보았지만 추수꾼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보았기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 추수 할 밭을 보게 하십시오.”

매년 4월 23일 일년에 단 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터키 뷰육 아다섬이 열립니다. 매년 뷰육아다 섬에서 각 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올해는 복음을 전하며 그 놀라운 수확으로 인해 우리모두 놀랐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 성도를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기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앞에 우리는 모두

두손 들어 주를 찬양했습니다.

13개 팀 중 한 팀에서만 60여 명이 뷰육아다섬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으며, 작년에 유방암을 위해 기도 받은 자가 치유 받고 돌아와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올해에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와서 무릎꿇고 기도해달라는 분도 계셔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13개의 팀들을 통해 수 백명의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기도 사역 중 치유받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우리안에 부어진 그들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분들을 현지 교회와 연결시켜드렸습니다.

뷰육아다 섬 사역 후 13개의 팀들은 터키의 각지와 이집트, 북 이라크로 흩어져 복음전도를 했습니다.



예지디 텐트심방



예지디 어린이사역

저희 팀은 18인이 의료팀, 아동사역팀, 텐트 심방팀으로 나누어져 이라크 북부 자치공화국인 쿠르디스탄에 가서 예지디 민족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라크 북부도시 “자호”에 있는 차미스쿠 예지디 난민캠프에서 우리팀은 의료 봉사로 총 700여명의 환자들을 섬겼고, 아동사역으로 매일 50인을 섬겼으며, 매일 다섯 가정을 심방하며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네 가정의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이전에 없었다고 캠프 사역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도 추수의 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성읍을 얻으셨던 것 처럼... 마치 예수님이 준비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이라크 자호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 느흐하드를 소개합니다.

하루는 제 앞을 지나가는 느흐하드에게 다가가 “당신의 집에 내일 방문해도 될까요?” 했더니 흔쾌히 “예”라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그의 집을 방문하고 그를 교회에 초청할 때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다음날 느흐하드 집에 가서 교제한 후 제가 교회로 초청하니 그가 목이 메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밤 꿈에 당신이 내게 와서 교회에 가자고 하는 꿈을 꾸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하며 자기의 아내와 남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3일을 우리와 동행한 후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성경을 요구했고 십자가 목걸이를 원했습니다.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아주 호의적이었고 텐트 방문마다 기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알고보니 이곳에서 NGO 사역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하비비 국제단체가 충실히 그 분들을 섬겨왔고, 우리 전에 중국 단기팀이 와서 기도하고 치료받은 일이 있어 우리에게 호의적이며 기도사역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또 다른 팀이 와 거두게 될 연합안에서 이루어지는 대



추수는 황홀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팀은 2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이민 12세가 모여 각자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직분들을 가지고 만났으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성숙한 지체들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내년에 쿠르디스탄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헤어지는 이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를 사랑하며 한 나라를 섬기는 우리팀은 만나자마자 연합되었고 형제가 연합한 그곳에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명하사 영혼을 추수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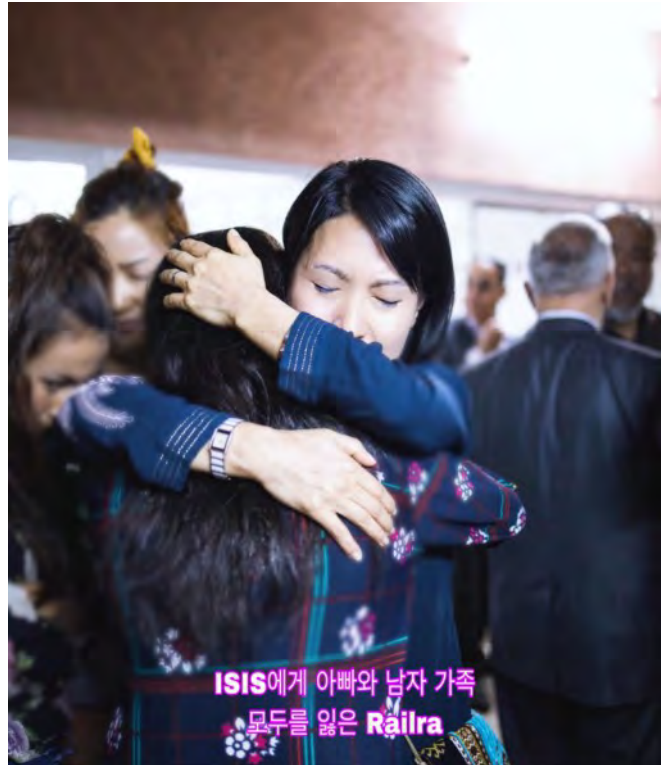
우리가 방문한 “자호”라는 도시는 이라크의 큰 도시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현지교회는 단 하나였고 다른 선교지에 비해 선교사들도 희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수 많은 나라 중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예지디 자매 라일라를 만나 심방했습니다. IS가 라일라 자매가 보는 앞에서 아빠를 죽이고 가족 중심인 남성들을 다 죽여 여자만 남은 가정이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여기 저기 떠도는 그들의 삶은 노숙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처할 안정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비비 단체의 리더 윌리가 이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훈련이 시급하다며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실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말씀하시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응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개의 팀이 각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이스탄불에서 만나 각 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렸습니다. 터키와 중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자기에겐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각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지 사역자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하십니다.

주님!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어린이 기도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글: 이해경 권사 (베델교회)

쿠르디스탄 팀은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 교회의 멤버들 18명이 모여 의료팀 (의사 3명, 치과 의사 2명, 약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 아동팀, 부녀 방문팀의 세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팀들은 그야말로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3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먼 곳에 계셔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카톡을 통해 만나다 보니 정작 만났을 때는 오래된 친구같이 어느새 친근하고 반갑게 되었습니다. 팀 구성원의 나이도 20대-70대까지 되어 한 대가족이 함께 선교를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4월21일, LA를 떠나 4월 22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모든 인원이 만나 반갑게 해후를 한 뒤, 그날 밤 이라크 에르빌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합심으로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 쿠르디스탄 예지디인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웃리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선교가 되게 해 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에르빌 공항에 새벽 2시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 이상을 달려 자호에 있는 숙소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루 반이나 걸린 여행에 모두 비몽사몽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던 대원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오후에 차미스쿠 텐트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여 각 사역 팀들의 료사역, 치과 사역, 한의 사역, 어린이 사역) 이 사역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임시 클리닉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아침마다 숙소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큐티로 하루를 열고, 사역 전에도 모든 팀들과 현지 사역자들도 같이 모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우리 텐트 클리닉에서



맨 왼쪽 이해경권사

치료받으면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손길을 맞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일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역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매일 팀별로 그 날의 사역을 보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예지디인 사역의 한가지 특징은 2014년 IS에 의해 수많은 남자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간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라 사후 외상 스트레스(post - trauma stress)로 인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는 눈물로 하나님께 그들의 아픔을 맡겨드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여인은 6번을 유산했는데 아이를 갖기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의 최초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간구했습니다. 태의 생명이 끊어진 사자에게 1년 후 이삭이



난민텐트 의료사역



예지디 할머니 환자



쿠르디스탄 난민촌텐트 의료사역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에 가서 그 여인의 아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환자들을 만났는데, 주님은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일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환자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이 오버랩 되게 보여 주셨고, 마구 밀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클리닉에 들어오면 서부터 대성통곡을 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체크해 보니 심장이 1분에 168번, 숨을 1분에 40-50번 쉬시며 발작 비슷한 증상을 보여 두 분의 의사가 응급조치를 하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지만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기를 들고 쫓아가 성령님께 이분이 진찰받으러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진정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순간 정말 기적같이 잠잠해져서 모두 놀랐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문 하나 없는 텐트 안은 찜통이 되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밀려드는 인파가 너무 많아 환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출입문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람이 그 출입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

는데 그곳을 막으니 진료소 안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의사 중 한 분은 산소 부족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셨는데 그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치과 의사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지디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 한 사람이 4개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들을 다 벗겨야 침을 놓을 수 있는 한의사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땀새나는 옷을 벗기고 정성으로 침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팀도 두 분이 정말 잘 준비해 오신 VBS로 매일 어린이들을 섬기며 신나게 사역하실 수 있었고,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우리 버스가

사역지에 도착하면 미리 나와 팔짝팔짝 뛰며 우리를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맞이하듯 해 주었습니다.

가정 방문 부녀 사역팀도 매일 텐트 집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팀들이 뿌려 놓은 씨가 무르익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수확했고, 여러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는 추수작업을 매일 신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캠프의 인구는 35,000명이 넘는데 우리가 진료하고 치료한 환자들은 1,000명이 못되고, 또 진료받으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을 다 돌보아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던 아쉬움이 남지만 우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저희들을 하나님 일에 감히 동역 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